

시연 施連칼럼

직장신공, 삼국지 처세술

權五信 칼럼니스트

직장 신공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일화는 유비와 제갈량 일 것이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조직 내에서 사람과 사람 간에 얹히고 설친 공명심(公明心), 삶과 처세는 2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다를 바 없다.

난세(亂世) 일수록 삼국지(三國志)가 더 읽힌다. 읽을 수록 포커페이스의 달인인 유현덕의 밀전(密戰) 가문의 23세손) 까지 알게 되었으며 의로운 도망자 관우, 말보다 주먹을 앞세우는 열여섯 살 고아 소년 장비가 출세하는 꿈같은 얘기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도원결의(桃園結義)를 한 형제들이 생사를 넘나들며 삶의 고통을 이겨내는 우정들이 배신과 무능의 늪으로 내몰린 현대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유비 관우 장비 조조를 제갈공명 등 주요 인물들의 처세를 보면 살아가는 길이 보인다고 한 중국(中國) 지식인(士)의 얘기가 대략 10대 명강사로 떠오른 것도 처세술(處世術)에 몰입한 공직자들의 수강 덕분이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시대의 화두처럼 떠오른 공정을 잣대로 살았다면 그는 언제나 뒷줄에 쓰는 달인이었을 것이다.

제갈량을 맑은 머리라면 행시, 사시, 외시는 물론이고 20만 명이 몰리는 삼성 고시쯤은 눈 감고도 돌파했을 터이지만 문제는 요즘 공직자들이 제갈공명의 머리만 맑은 것을 원했을 뿐 공명의 청렴(清廉)도는 꺼내놓지도 않는다.

“성도에는 뽕나무 8배 그루, 메마른 밭 15경(傾)이 있으니 자식들의 의식(衣食)은 너너합니다. 신이 밖에 나가 있을 때도 특별히 보살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에 따르는 의식은 모두 관에서 받고 있으니 다른 생업이 필요 없으며 신이 죽는 날 여분의 비단이나 재산을 남겨 폐하(陛下)의 은총(恩寵)을 저버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갈공명이 중원정벌에 앞서 후주에게 올린 출사표이다.

유비가 죽자 족의 모든 권력(權力)은 공명의 손에 있었지만 그는 정권을 뒤엎고 재산이나 모으는 천박(淺薄)한 리더는 아니었다. 그가 죽고 난 후 날 자녀에게 남긴 재산은 출사표(出師表)에 적힌 내용과 같았다. 제갈공명의 청렴(清廉)도는 당연히 본받아야 할 사표다.

공명의 뒤를 이은 강유도 후주의 다음가는 자리에 있었지만 집은 낡은 초가(草家) 이었으며 나라에서 주는 웃만 입어 공명 못지 않은 청렴(清廉)성을 지켰다. 세계가 알아주는 유행어 “내로남불”에 부과지수를 46위로 끌어올린 한국의 공직자(公職者)들이 놓치는 게 제갈공명(諸葛孔明)의 처세술(處世術)이 아니라 청백리(清白吏) 정신이다.

사실 처세술(處世術)로 따진다면 사마의가 한 수 위다.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에서 처세의 달인은 제갈량(諸葛亮)보다 언제나 한 수 뒤처지는 상대로 비추어지는 사마의다. 그 사마의는 조비(조조의 아들로 위나라 첫 황제)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어린 황제(皇帝) 조예를 조조의 조카 조조와 더불어 지근(至近)에서 돋는 중책을 맡았다.

서쪽 전선을 함께 지키던 조조 대장군으로부터 늘 의심과 견제구를 받았지만 전략을 내고 전공까지 조조의 것으로 돌렸다. 나이 예순, 조예의 특별한 배려로 고향에 돌아갔을 때도 권력에 뜻이 없음을 나타낸는 시(詩) 한수를 짓고는 꼬리를 슬며시 내려 버린다.

이렇듯 숙내를 드러내지 않고 인내심(忍耐心)으로 버틴 타월한 처세술(處世術)의 달인 사마의는 조씨 집안 4대를 섭기며 40년을 기다린 후날에 삼국통일(三國統一)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다. 76살까지 살았으니 당시로서는 천수를 누린 셈이다.

어째든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의 저자는 유비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큰 귀(用人物)를 가졌고, 자신을 철저하게 절제하면서도 지적인 면에서는 항상 앞서는 관운장을, 의리는 장비를 끌어야 하는 것으로 그렸다.

임기응변과 처세술(處世術)로는 ‘조조’만한 인재는 없었을 것이다. 인간관계만을 따지면 의리 떻어리이고 전장에 나서는 지력을 고루 갖춘 삼상 ‘조자룡’만한 인물은 없다. 이런 사람은 한국 사회는 물론 중국에도 찾기 힘들 것이다. 그렇게 처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비 관우 장비 조조를 다 생각하다 보면 복잡한 사회생활로 치면 머리에 철 공간이 없다.

말술을 들이키는 장비는 우리 사회의 술문화로 치면 폭탄주의 시원이다. 장비 같은 공직자나 직장인은 지금 한국 사회에 수두룩하다.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는 직장인 공직자들을 보자. 룸살롱에서 술 접대만 받고 2차까지 나가면 더 큰 문제 끼리다.

결국 밀실에 이루어진 뒷일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삼국지(三國志)에 나오는 인물이 모두 훌륭한 것은 아니다. 선악(善惡)에 대비되었기 때문에 재미있었을 뿐이다. 우선 유비는 우유부단하다. 그걸 막으면 세상사(世上事)를 다 놓치게 되며 관우는 결백해서 사람이 잘 따르지 않고 불같이 화를 잘 내는 장비 하고는 깊은 말을 나눌 수 없다.

관우 장비 같은 처세술(處世術)을 한국으로 옮겨왔다는가 세계적(世界的)으로 이름난 저항정신(抵抗精神)의 노조원이 인기 투표를 했을 경우 당장 퇴출(退出) 대상이다. 자리가 곧 돈일까. 국회(國會) 인사청문회를 거쳐 간 술한 인사들 가운데 청렴(清廉) 인사(人事)로 거명(擧名)된 사람이 여태껏 한 명도 없었다는 것 역시 마음이 아플 따름이다.

현조(賢祖) 문집 봉람(奉覽) (16)

산택재집(山澤齋集)



권갑현 편집위원장

〈산택재집〉은 권태시(權泰時, 1635~1719) 공의 문집으로 4권 2책이다.

공은 시조 태사공의 25세로 안동권씨 부정공파이다. 출생지는 안동부(安東府) 금계리(金溪里)로 초명은 만춘(萬春), 자는 형숙(亨叔), 호가 산택재(山澤齋)이다. 부친은 권창업(權昌業)이며, 모친은 남양홍씨(南陽洪氏)로 충의위(忠義衛) 흥록(洪勒)의 딸님이다.

목재(木齋) 흥여하(洪汝河, 1620~1674), 고산(孤山) 이유장(李惟樟, 1625~1701), 이휘일(李徽逸, 1619~1672), 갈암(葛庵) 이현일(李玄逸, 1627~1704) 등과 학문적인 교유가 깊었다.

1690년에 이현일이 학행(學行)으로 천거하여 장악원(掌樂院) 주부(主簿)가 되었다. 이해 겨울에 회덕(懷德) 현감이 되었다. 5년 동안 재임하면서 여러 업적을 남겼으며 이를 바탕으로 〈거관요람(居官要覽)〉을 저술하였다.

1694년 갑술옥사 후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가 여생을 보내면서, 1701년에는 문중의 학자들과 더불어 〈안동권씨 신사대동보(辛巳大同譜)〉 13권을 편찬하였다. 예학에 관한 훈해(訓解)와 변례질문(變禮節問) 등을 모아 〈가례전주통해(家禮傳註通解)〉 4책을 엮기도 하였다.

포현(浦軒) 권덕수(權德秀, 1672~1759)가 행장을 짓고 해좌(海左) 정병조(丁炳祖, 1723~1801)가 비문을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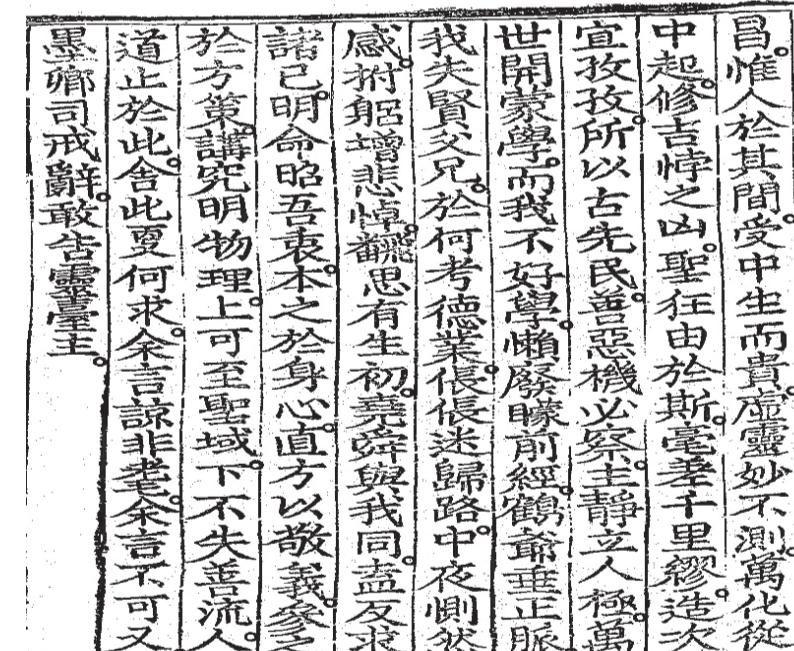
배 증숙인(贈淑人) 창원황씨는 별제(別提) 천일(千一)의 딸님이고 4남 2녀를 낳았으며 묘소는 안동시 서후면 대두서리(大豆西里) 마명(馬鳴) 백호(白虎)에 해좌(亥坐) 합묘이다. 배 숙인 월성이씨는 완(完)의 딸님이고 2남 1녀를 낳았으며 묘소는 갈마동(葛馬洞)에 있다.

공의 유문(遺文)은 처음으로 서산(西山) 김흥락(金興洛, 1827~1899)에 의해 100여 편이 수습되었으며 이어 권재명(權在明)에 의해 추가로 수습되었다. 그 뒤 김익모(金翊模)의 주죽으로 금계리(金溪里)의 원로들이 뜻을 모아 유문을 교감하고 묘도문자(墓道文字)를 붙이고 척암(拓菴) 김도화(金道和, 1825~1912)의 서문과 가산(柯山) 김형모(金瀅模, 1880~1930)의 발문을 받아 1910년 가을에 경광서당(鏡光書堂)에서 2권 1책의 활자로 간행되었다.

그다음 해 1911년에 안동(安東) 사립(士林) 신익호(申翼浩), 권병국(權炳國), 신여흡(申汝欽), 박상범(朴尚範), 권태승(權泰升), 신상하(申相夏) 등에 의해 목판으로 중간되었다.

이 중간본에서는 초간본의 몇몇 오류를 바로잡았으며, 초간본보다 시(詩) 26제(題), 편지 5편, 제문 2편이 추가되었고, 새로이 명(銘)과 행장(行狀)이 1편씩 실렸으며, 부록으로 만사(萬辭) 13편이 더해졌다.

본집은 권두에 1910년 7월에 쓴 김도화(金道和)의 서문이 있고, 이어 목록이 나온다. 권1~권2의 중반부는 사(辭) 1와 시(詩) 161이다. 사(辭)는 남진(藍田) 여대임(呂大臨)이 지은 〈의초사(擬招辭)〉를 모방하여 지은 것이다. 시(詩)는 벗들과 천등산(天燈山), 학가산(鶴加山) 등을 유람하며 지은 것, 회덕



(懷德)현감에 제수되어 사은하고 돌아오며 지은 것, 47세 때 지난날을 반성하고 앞날을 경계하며 지은 것 등이 있다. 만시(挽詩)는 이휘일(李徽逸)에 대한 것이다.

권2 후반부~권3은 편지(17), 잡지(雜著:1), 서(序:4), 기(記:2), 발(跋:1), 뇌문(諫文:1), 제문(祭文:1), 행장(行狀:1), 유사(遺事:1), 광기(擴記:1) 등이다.

권4는 부록으로 밀암(密庵) 이재(李裁, 1657~1730), 창설재(蒼雪齋) 권두경(權斗經, 1654~1726) 등이 쓴 만사, 그리고 제문, 유사, 행장, 묘갈명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말에는 1910년 간행 당시 초간본에 실렸던 김형모(金瀅模)의 발문과 이듬해 1911년 5월에 중간하면서 쓴 신익호(申翼浩)의 발문이 실려 있다.

이 본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한국고전종합DB〉에는 구두집이 붙은 원문 이미지와 컴퓨터 입력 원문을 열람할 수 있다.

다음은 공의 문집 권1의 첫 번째 시 〈스스로 경계하다 20운(韻)〉를 국역한 것이다.

아득한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의 음(陰) 그리고 하나의 양(陽)이, 오르내림에 멈춤이 있는데 온갖 사물 어찌 그리 창성(昌盛)한가?

오직 사람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하늘로부터 선(善)한 성품을 받아 태어나 귀하니, 그 텅 비고 신령한 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운데 온갖 변화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네.

닦으면 길(吉)하고 어기면 흉(凶)하여 성인과 미치광이가 여기에서 말마암으니, 조금의 어긋남이 나중에는 천 리 차이 나니 잠깐 사이에도 부지런히 힘써야 하네.

그래서 옛사람들은 선(善)과 악(惡)의 기미를 반드시 살펴서, 고요함을 표준으로 삼아 영원토록 어린아이 교육 열어주었네.

그러나 나는 학문을 좋아하지 아니하여 게으르고 앞길이 어두웠으니, 학봉 선생 바른 학매를 남겨주셨는데 나는 어지신 부형들을 놓쳤다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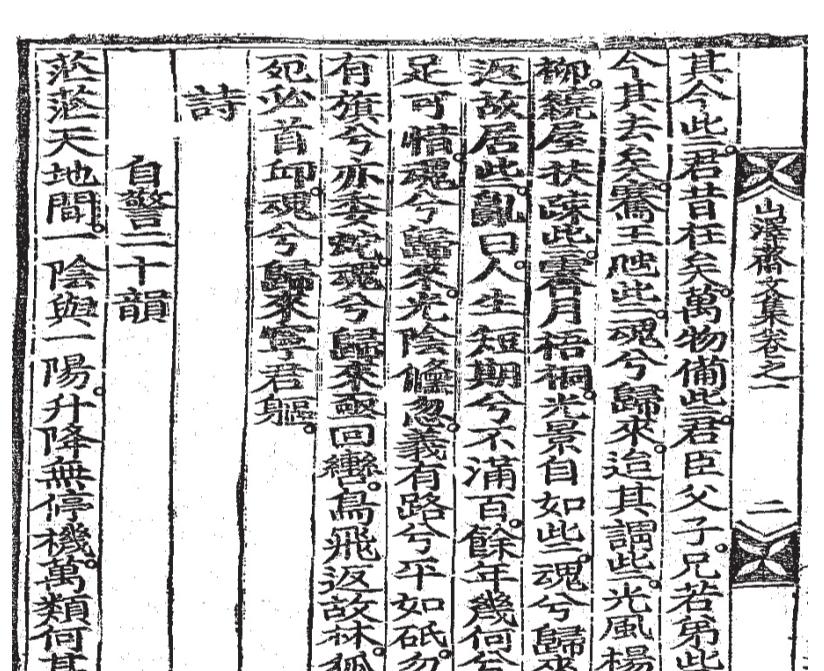
어디에서 덕행과 업적을 찾아보라. 허둥대며 돌아갈 길 찾지 못해, 한밤중에 측은하고 느낌이 있어 나 자신 어루만지니 더욱 슬프도다.

돌이켜 생각하니 처음 태어났을 때는 요임금과 순임금이 나와 같은 사람이었으니, 어찌 내게서 잘못을 찾지 않으랴? 하늘의 밝은 명령 내 마음을 밝게 비추고 있네.

마음에 근본 두어 공경하여 안을 바르게 하고 의(義)로써 밖을 반듯하게 해야 하니, 이러한 것을 서책(書冊)에서 참고하여 강구하고 사물의 이치를 환히 밝혀야 하리라.

위로는 성인의 경지에 오를 수 있고 아래로는 착한 무리 잊지 않으리라. 사람의 도는 여기에서 그치니 이것을 버리고 다시 어디서 구하겠는가!

나의 말이 진실로 늙은이의 말이 아니고 나의 말은 다시 할 수 없는 말이니, 필묵(筆墨)으로 경계(警戒)의 글을 적어 감히 영대(靈臺)의 주인에게 고하노라.



별유천지비인간, 요선암

권혁진 박사
충밀공파, 36세, 강원한문연구소

암석의 갈라진 틈이나 오목한 곳으로 모래와 자갈이 들어온 후, 소용돌이치는 물살로 회전운동을 하면서 주변의 암반을 깨어 내린 것이라고 한다. 생성 원인을 모르고 바라봐도 활활하기 그지없다. 바가지만한 작은 구멍, 육조만한 넓적한 구멍이 곳곳에 퍨져 있다. 거대한 아무기가 지나간 것처럼 굵은 원통형의 모습이 보이고, 파도처럼 너울너울 곡선을 그리기도 한다. 각양각색 이지만 모두 곡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곡선의 미학은 이 일대를 빼곡하게 채워놓았다. 둘개구멍 속에 물은 잠시 갈 길을 잃는다. 하늘이 내려앉은 곳에 바람이 잠시 머물다 간다.

조인영(趙寅永, 1782~1850)은 주천 가는 길에 요선암을 보고 경탄하였다.

구름이 개자 자갈길 보이고 / 林雲開石徑
시내 소리에 산촌 노래 화답하네 / 溪籟答山歌
구멍은 어찌 조물주 미칠 수 있으며 / 空豈天工及
깎은 것은 물의 힘이 많았으리라 / 磨滌水力多
언덕의 빚은 단풍 가을이라 더 붉고 / 岸紅秋競入
흰 모래에 비가 새롭게 지나가네 / 沙白雨新過
뛰어난 경치 비록 이와 같더라도 / 絶勝雖如此
멀고 외진 곳이라 어찌할 것인가 / 其於僻遠何



만물을 만든 조물주조차도 힘이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는 표현은 요선암에 대한 최고의 찬사다. 더 어찌 표현할 수 있단 말인가. 아울러 물의 위대함을 칭송한다. 바위보다 약해 보이는 물이 결국에는 매끈한 비누처럼 곡선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조선의 명필 양사인이 ‘신선을 맞이하는 바위’인 요선암(邀仙岩) 이란 글씨를 새겼다는 전설은 마땅히리라. 요선암에서 요선정으로 가는 길은 산책코스로 적당하다. 소나무가 울창한 길을 이룬다. ‘신선을 맞이하는 정자’인 요선정은 요란스럽지 않다. 일제강점기인 1915년에 숙종의 어제시를 봉안하기 위해 건립했다. 숙종의 어제시는 주천면 청허루에 걸려 있었는데 회재로 소실되었다. 숙종에 이어 즉위한 영조가 숙종의 어제시를 다시 쓴

뒤 편액을 내렸다. 요선정 안에 영조가 쓴 숙종대왕 어제시와 정조의 어제시 편액이 같이 걸려 있다. 정자 앞에는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하는 마애석불과 작은 석탑이 서 있다. 오도일(吳道一, 1645~1703)의 ‘주천요선암’에 ‘계곡에 안개 걷히자 골짜기 해는 높고 절은 텅 빙 수풀 언덕에 흘로 있네’라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중기에 암자가 있었던 것 같다. 스님은 매일 마애석 불을 보며 불공을 드렸을 것이다. 암자는 사라지고 소박하고 온화한 석불과 석탑만 남았다. 마애불 뒤편은 깨어져 듯한 절벽 아래로 주천강과 범흥계곡의 물줄기가 시원하다. 시원하다 못해 씨릿찌릿하다. 푸른 산줄기는 겹겹이 이어진다. 절벽 끝자락에 아슬아슬한 소나무가 주천강의 풍경을 독차지한다.